69

폐암환자에서 종격동 임파절 크기와 암전이의 관계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고정관 · 박형주 · 김재영 · 김우종 · 이철세 · 이길로

폐암 환자에서 수술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발견된 종격동임파절의 암전이 여부는 폐암의 병기결정에 중요한 인자이며, 또한 치료방법중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지침이된다. 본 연구는 비폐암 환자와 폐암환자에서 절제한 종격동임파절의 크기 및 조직소견을 수술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과 비교하여 수술전 수술여부의 결정 및 수술방법의 선택에 지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.

연구대상은 3개의 군으로 나누어 I군은 염증 및 악성암의 질병이 배제된 환자의 개흉술시 절제한 종격동임파절로서 10명의 환자에서 10개의 종격동임파절을, II군은 비소세포암 환자에서 절제된 종격동임파절로서 암전이가 되지 않은 10명의 환자에서 15개의 종격동임파절을, III군은 비소세포암의 환자에서 절제된 종격동임파절로서 암전이가 된 10명의 환자에서 14개의 종격동임파절을 분석하였다.

성적의 분석은 모수통계의 ANOVA test와 비모수 통계인 Kruskall-Wallis test를 모두 이용하였다. 성적의 결과는 I, II, III군의 장경평균이 각각 10.7 ± 1.5mm, 16.4 ± 1.7mm, 28.7 ± 4.8mm였고, 단경평균은 5.5 ± 0.63mm, 7.2 ± 0.5mm, 16.6 ± 1.9mm로서 장경 및 단경모두 I군과 II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고(P = 0.09), I군과 III군(P = 0.0016), II군과 III군(P = 0.008) 사이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. 수술전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의 정확도는 II군에서 66.6%, III군에서 71.4%였으며, 수술후 조직검사와의 관계는 Mantel-Haenszel Chi-square test결과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(P = 0.74). 폐암 환자에서 종격동임파절이 전이된 군에서 임파절의 크기가 컸으며 전이된 종격동임파절의 단경평균은 16.6 ± 1.9mm였다. 수술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의 결과는 종격동임파절의 전이여부 판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,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